

News

신용대출 진정세… 금융당국, 당분간 추가 규제 않기로

문화일보

주요 은행 신용대출 잔액 이틀째 줄어...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지 않고 신용대출 또한 안정세에 추가 가계대출 규제 않기로...

"현재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가계대출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효과를 지켜볼 것"

은행, 원금손실 가능성 낮은 비예금 상품 판매 쉬워진다

조선일보

손실 가능성에 따라 상품 판매 총책임자 이원화 추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임원급이,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은 부서장급이 담당...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이사회에 약식 보고 또는 사후 보고 등을 통해 판매가 수월해질 전망...

내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데일리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 대출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대상도 앞서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차기 국민은행장, 안정이냐 세대교체냐

아시아경제

하인 행장 11월20일 임기 만료... 빠르면 이달 말 절차 시작해 다음달 차기 행장 확정... 허인 · 이동철 · 양종희 · 박정림 등 4파전

경영 안정과 세대교체 사이에서 장 · 단점을 비교해 차기 국민은행장을 뽑아야 하는 고민...

코로나19 장기화에 보험도 비대면으로…MZ세대 중심 미니보험 '강세'

전자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 보험사들도 'MZ세대'를 겨냥한 미니보험 판매 확대나서... 본인인증절차 간소화로 가입절차도 간편해져...

온라인채널은 5년간 초회보험료가 2015년 76억원에서 2019년 약 169억원으로 123.6% 증가...

'영끌' 막자…당국, 보험사 주담대 제동

헤럴드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당부... 시중은행에서 보험사로 '영끌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

일부 보험사 금리는 실제로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높지 않아... 생보사는 2% 초반에서 3%대, 손보사는 2% 초중반 수준...

'코로나 직격탄' 상반기 ELS·DLS 발행 32% ↓ …증권사 파생 1조 손실

뉴스1

파생결합증권 발행 · 운용 손익은 -1조원으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ELS·DLS 발행액은 4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 감소

"증권사들의 해지자산 거래에 따른 손익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올해 증권거래세 역대 최대 전망

연합뉴스

올해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난 18일까지 주식시장 일평균 20조1천499억원 수준...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에 반영되는 거래대금은 4천97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 증권거래세로 8조8천억원 정도가 걷힐 것... 작년의 두배 수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